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ISSUE

경제동향

경제일지

경제지표

기획

['13.12.18] 난개발 방지정책 3년째 '개별공장' 감소

- 개별공장 입지 검토·심의 통합지침 영향 ... 3년간 3.5%p 줄어 -
- 충남도는 개별공장 증가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개별공장 입지 검토·심의 통합지침'을 제정·운영한 결과 개별입지 연평균 증가율이 3.8%(2006~2010)에서 최근 3년간 -1.1%로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 도에 따르면, 지침 제정이후 지난 3년간의 성과분석 결과 도내 개별입지 비율이 2010년 66.7%에서 2011년 65.5%, 2012년 64.7%, 2013년 현재 63.2%로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도내에서 도의 정책에 부응해 지침을 제정해 운영한 시·군의 경우 최근 3년간 개별입지 비율이 5.2% 감소(68.9%→63.7%)한 반면,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시·군은 0.9% 감소(63.4%→62.5%)에 그친 것으로 조사 됨
- 도는 '개별공장 입지 검토·심의 통합지침'을 통한 개별공장 입지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이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개별공장 입지 관련 난개발 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함
- 도 관계자는 "성과분석 결과 개별공장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는 물론 친환경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시·군에는 조속히 제정토록 촉구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별공장으로 인한 난개발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함
- 한편, 도는 지난 2011년 8월 개별공장 입지 증가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환경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별공장 입지 검토·심의 통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시·군 실정에 맞게 제정·운영토록 통보한 바 있음

['13.12.18] 18일 道 동반성장협의회 분과위원회 개최

- 올해 추진실적 · 내년도 계획 보고... 분과별 분임토의 진행 -
- 충남도는 18일 공무원교육원에서 2013년 하반기 동반성장협의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
- 지난 7월 출범한 제2기 동반성장협의회 6개 분과 5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올해 동반성장 추진실적 및 내년도 추진계획 보고와 분과별 분임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

- 분과별 분임토의에서는 분과위원장이 1~2개의 주제를 정해 실시하되, 도의 동반성장 발전 및 활성화 방안과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등에 관한 해당 분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한 주제로 한정해 실시
- 도 경제통상실장은 인사말에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균형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거래를 하고 기술과 성과를 공유해 상생의 기업문화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동반성장의 정신”이라고 말함
- 도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조력자로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반성장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함
- 한편, 제2기 충남도 동반성장협의회는 지난 7월 위촉돼 활동 중으로, 전자분과, 자동차분과 등 총 6개 분과에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유관 기관·단체장 등 57명으로 구성 되어 있음

['13.12.19] 도 역제안 '보전산지 공장입지' 규제 풀려

- 1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
- 충남도가 최근 정부에 건의한 보전산지 규제개선 과제가 받아들여져 산업단지 개발 및 공장증설이 한결 쉬워지게 되었음
- 도는 17일자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보전산지가 편입될 경우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산림훼손 방지시설을 갖추면 배출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공장입지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힘
- 그동안은 산업단지에 보전산지가 편입될 경우 대기오염 물질 및 폐수배출시설 5종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하도록 제한해 산업단지 개발 및 공장증설에 장애로 작용해 였음
- 이번 개정은 도가 기재부와 국토부, 산림청 등에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현장 설명, 이해 설득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온데 대해 중앙정부가 화답한 사례로, 앞으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이번 규제 개선으로 수혜를 받게된 기업으로는 공주시 검상농공단지에서 반도체 및 LCD용 부품을 생산하는 솔브레인(주)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주)LG화학으로, 이들 업체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신규투자 4조원, 고용창출 5000명, 연간 세수 650억원, 외자유치 1억불 유치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도는 이들 두 기업이 공장증설을 통해 지역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지원해 나갈 방침
- 도 투자입지과장은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충남도와 중앙정부의 발전적 정책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는 중앙정부의 정

책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인 제안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나가겠다”라고 말함

['13.12.19] 道, 2013 고용창출 우수기업 5곳 선정

- 19일 (주)유티아이 등에 인증패...총 379명 일자리 창출 효과 -
- 충남도는 19일 도청에서 올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주)유티아이(대표이사 박덕영) 등 5개 기업을 선정하고 인증패를 수여함
- 도에 따르면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은 (주)유티아이, (주)현일코프레이션, 와이엠씨(주), 세정산업(주), 에프엔에스테크(주) 등으로, 이들 기업들은 올 한 해 동안 총 379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둠
- 우수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살펴보면, 5개 기업이 지난 1년간 정규직 채용 317명, 정규직 전환 55명, 청년인턴 7명 등이며, 향후 6개월 이내 72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
- 이 가운데 (주)유티아이는 최근 1년간 근로자 160명을 채용해 이번에 선정된 기업 중 가장 많은 직원을 증원했으며, (주)현일코프레이션은 90명, 와이엠씨(주)는 35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됨
-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도내에서 2년 이상 정상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전년도 보다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이면서 10%이상인 기업에 대해 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임을 인증하는 제도임
-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되고, 근로환경개선 비용 1500만원 지원,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료 1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짐
- 도는 지난 2010년부터 총 47개 기업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해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유도할 방침

['13.12.19] 수출 · 내수초보기업 역량강화 사업 ‘성과’

- 18개 업체 669만불 수출상담·15개 업체 425만불 수출계약 -
- 충남도가 올해 추진한 ‘수출·내수초보기업 역량강화 사업’이 사업시작 8개월 만에 큰 성과를 거두며 참가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19일 도에 따르면 충남 수출 내수·초보기업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한 30개 업체 중 18개 업체가 669만불의 수출상담을 통해 15개 업체가 425만불(한화 46억7500만원) 수출계약 성과를 거둠
- 실제로 이번 사업에 수출준비단계로 참가한 금산군 소재 H사는 뿌리삼 제품을 홍콩에 A사로부터 150만불을 수출을 했으며, 수출성장 단계에 있는 공주시 소재 B사는 올해

에만 19만불을 수출하고 내년도에는 연간 20만불 계약을 체결

- 또 수출확대 단계의 천안시 소재 H사는 이 사업을 통해 에코도르에 4명의 진성 바이어를 발굴을 해 접촉한데 이어 내년에는 본격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전망
-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수출 유망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수출준비(22개 업체), 수출성장(3개 업체), 수출확대(5개 업체) 등 수출의지가 높은 30업체가 참여해 기업의 수출역량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임
- 세부적으로는 온라인마케팅 지원, 무역실무교육, 제품 해외홍보, 해외시장조사 및 바이어 정보제공 등 수출에 필요한 각종 마케팅 활동을 패키지로 지원해 참가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도는 앞으로도 업체가 희망하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방식으로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본격적인 수출을 위한 모든 사전 마케팅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도 경제통상실장은 “수출·내수초보기업 역량강화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수출을 처음 하는 기업만을 위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향후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이 수출에 첫 걸음을 내딛는 동시에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독자적인 수출능력을 배양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13.12.24] 해외전시·박람회 충남관 수출성과 '톡톡'

- 올 한해 도내 96개 업체 참가...총 4400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 -
- 충남도는 올해 개최된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에서 도내 96개 수출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해 총 1억3900만불 수출 상담과 4400만 달러의 수출 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힘
- 도에 따르면, 올해 세계적으로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은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 교역회, 독일 국제 소비재 박람회 등 17개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에 도내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해 충남관을 운영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둠
- 특히 지난 4월 개최된 터키 국제건축산업전에 면상발열체 생산업체 O사(홍성군) 등 5개사가 참가해 약 35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킴
- 또 지난 11월에 개최된 홍콩 화장품 미용전(Cosmoprof Asia)에 스킨케어 업체 D사(금산군) 등 5개사가 참가해 총 23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이뤄졌으며, 사후 계약 및 추가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터키 국제건축산업전에 참가한 (주)온돌리아 김효정 대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터키의 N사와 81개 도시에 426개 지점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등 FTA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면서 “앞으로도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해 해외전시·박

람회에 꾸준히 참가하겠다”고 말함

- 도는 내년 1~2월에 개최되는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에도 ‘충남관’을 구성해 참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연속적으로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FTA 체결로 늘어가는 경제영토를 선점해 나갈 계획
- 도 국제통상과장은 “앞으로 FTA 체결 국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더 많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유명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도에는 도내 기업이 무한경쟁 체제의 수출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함

['13.12.26] 충남 수출 역대 최고...650억불 돌파 ‘눈앞’

- 11월까지 수출누계 596억불·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 기록 -
 - 충남지역의 수출실적이 올해 11월까지 596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올 연말까지 충남지역의 한 해 수출실적이 집계사상 역대 최고치인 650억 달러를 크게 웃돌 전망
 - 도는 올해 11월까지 도내 총 수출액이 지난달 말 기준 596억3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7억4400만 달러에 비해 5.1%(28억8900만 달러) 증가했다고 26일 밝힘
 - 같은 기간 전국 수출은 5116억6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5029억9400만 달러)에 비해 1.7%(86억7500만 달러) 증가한데 그쳐 충남지역 수출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임
 - 충남지역 수입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306억7500만 달러) 대비 1.2%가 증가한 310억 4100만 달러로, 전국 수입액(4711억5200만 달러)의 6.6%를 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충남의 올해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흑자기록에 힘입어 28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9.7%가 늘어나 집계사상 최대치를 달성
 -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72.1%), 컴퓨터(10.8%), 반도체(5.4%) 등 IT제품과 석유화학중간원료(69.8%) 품목이 도의 수출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
 - 특히 무선통신기기는 중국(134.7%), 홍콩(97.6%)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으며, 석유화학중간원료는 중국(72.6%), 대만(58.7%)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를 보임
 - 품목별 수출액 및 수출증가율을 보면 ▲반도체 159억3600만 달러(5.4% 증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99억3100만 달러(6.4% 감소) ▲전자응용기기 50억4400만 달러(21.7% 증가) ▲석유제품 48억1900만 달러(11.4% 감소) ▲석유화학중간원료 31억7500만 달러(69.8% 증가) ▲컴퓨터 24억1300만 달러(10.8% 증가) ▲자동차부품 23억9800만 달러(15.6% 증가) 순으로 나타남
 - 국가별 수출액 및 수출증가율을 보면 ▲중국이 280억6900만 달러로 12.2%의 증가율을

보였고 ▲홍콩 74억6900만 달러(6.8% 감소) ▲미국 46억1200만 달러(19.4% 증가) ▲대만 29억7800만 달러(29.0% 증가) ▲일본 27억 9000만 달러(16.7% 감소), ▲베트남 23억 1400만 달러(16.7% 증가)가 순으로 집계

- 특히 미국은 자동차부품(26.1%), 자동차(15.6%)가 미국 전체 수출액의 41.7%로 비중이 높아졌으며, 지난 5월 FTA가 발효된 터키도 철강금속제품(111.8%), 전기·전자제품(81.1%)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일본으로의 수출은 석유제품(19.6% 감소), 반도체(40.5% 감소), 합성수지(19.5% 감소) 등 9월(3.6%)에 반짝 증가세를 기록한 후 10월과 11월 각각 23.5%, 26.8%가 각각 감소하는 등 엔화약세 여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도 경제통상실장은 “충남의 최근 수출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 지역으로의 안정적 수출경기 및 도 주력품목의 IT제품의 수출 증가, 신항시장으로의 수출품목 다변화 노력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했다”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당초 수출목표인 630억 달러를 크게 웃돌아 650억 달러를 돌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13.12.26] 상생산업 신규 사업 발굴 · 지원 확대

-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도 진행 -
- 충남도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와 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
 - 사업 추진 현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보고회는 추진상황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
 - 도와 15개 시·군은 그동안 산단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를 구성한 뒤, 올 1월 충남 상생산업 정주계획 수립·심의 규정을 제정하며 추진 기반을 구축
 - 또 2월에는 추진(분과)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하고, 3~4월엔 권역별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자문과 의견 수렴을 가짐
 - 올해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도는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상생산업 조성 사업을 공모하여 3개 시 5개 사업을 확정
 - 내년부터 3년 동안은 총 3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
 - 또 예산군 고덕면 일원에 조성중인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가 오랜 진통 끝에 협의가 이뤄지고, 산단 심의위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됨
 - 시범사업지구인 내포신도시와 아산 탕정지구(삼성디스플레이시티), 당진 송산지구(현대제철) 등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설립, 공동주택 건립, 공원·체육시설 설치 등의 사업

이 추진되고 있음

- 도는 이와 함께 노후 농공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15억7000만원(25개소)과 국비 18억4300만원(4개단지)을 지원하였으며, 신규 조성 예정인 공주 송선일반산업단지 계획에는 인근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검토해 790세대의 정주계획을 반영
- 앞으로는 상생산단 조성 공모와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CEO 등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신규 사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공모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주여건 개선 관련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내용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할 방침
- 뿐만 아니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토록 제안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국비확보 노력도 병행할 계획
-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최호상 상생산단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충남기업인연합회 회장)은 “상생산단은 산단 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충남도의 대표 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발을 일구고 정리했다면, 올해는 그 밭에 씨앗을 파종한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상생산단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더 살기 좋은 충남, 경쟁력 있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13.12.29] 道, 올해 기업유치 성적표 'A+'

- 11월까지 614개 기업 유치...1만 1563명 고용 · 2조 253억원 투자 -
- 충남도는 올해 11월 현재 도내 유치기업 수가 614개로 올해 목표(500개사)를 일찌감치 달성했다고 29일 밝힘
- 이는 세계적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대내외적 여건악화로 지방의 기업유치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둔 성과로 도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이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
- 도에 따르면, 11월 현재 도내 유치기업 수는 614개로 이를 통해 2조253억원을 투자와 1만1,563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년 동월에 비해 1,910억원의 투자 확대, 1,441명의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기업별로 평균 33억원 투자와 19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진 셈
- 도는 민선5기 들어 꾸준히 추진해온 우량기업 선별유치 노력과 유치활동 대상을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단위로 넓히는 등 기업유치 정책을 전환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그간 도는 유치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인박람회 개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와 충남의 핵심산업인 자동차부품, 철강 등 연관기업을 타깃으로 집중적인 유치활동으로 벌여옴

- 올해 충남 기업유치의 주요 성과로는 내포신도시 1호 기업인 우수AMS(주)와 충남 제1호 국내복귀기업인 (주)케이에프엠 등이 꼽힘
- 도는 현재 내포신도시 입주를 목표로 2~3개사와 추가로 접촉 하는 한편, 올해 기업 유치 성과에 힘입어 제2, 제3의 기업투자으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도 기업지원과장은 “충남은 편리한 교통인프라, 저렴한 분양가, 풍부한 인적자원 등 기업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함
- 한편, 도는 내년 2월중 국내기업 3~4개사와 투자유치 협약(MOU)을 계획하고 있음

<참 고>

구 분	업체수	수도권이진	투자금액	고용인원	비 고
2013.11월말 실적	614	35	20,253억원	11,563명	
2012.11월말 실적	555	67	18,343억원	10,122명	

['13.12.30] 하나금융 충청권 지역은행 역할 강화 협약

- 30일 도 · 대전시 · 상의 등과 협약...3000억 규모 中企 자금 지원 -
- 내년부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손을 잡고 중소기업 대출비율 확대, 지역일자리 창출,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방은행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은행이 없어 열악했던 충청권 지역금융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전망
 - 지난 30일 대전시 중구 오류동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사옥에서 도와 대전광역시, 하나금융그룹, 대전·충남북부상공회의소간 지역은행 역할강화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짐
 - 이날 협약식은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염홍철 대전시장, 손종현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희평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윤용로 외환은행장 및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 그동안 지역에서는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각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 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금융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신규은행 설립시 소요되는 수천억원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지방은행 설립이 난항을 겪어옴
 - 이에 옛 충청은행을 인수해 지역에 많은 점포와 다양한 지역공헌사업을 해온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함께 손을 잡고 지역 기업인의 자금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적극 나섬
 -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와 외환은행은 지방은행에 준하는 조직과 제

- 도를 정비하고, 지역 중소기업자금 지원 확대, 지역자금 역외유출 최소화는 물론 충청권에 소재한 은행 및 콜센터에서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됨
- 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별도의 독립된 심사부서 및 RM(기업여신 전담역)을 충청지역에 배치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해 나갈 방침
-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내년 상반기 중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금을 저금리에 집중 공급함으로써,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
- 하나은행은 매년 원화자금 대출 증가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대출로 지원하는 등 시중은행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인 45%를 훨씬 상회해 지방은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외환은행 충청영업본부도 충청권 14개 영업점을 적극 활용해 대전 및 충남지역 수출입 기업에 대한 최신정보 및 상품 제공, 해외점포망 이용, 환율 및 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이외에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충남도와 대전시, 대전·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 정책자금 확대는 물론 금융특화상품 개발에 상호협력하기로 함
-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을 이미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또 이들은 지역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문화, 체육,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지역사회 공헌사업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
-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도와 대전광역시, 상공회의소, 하나금융그룹이 지역경제 발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의지를 모으게 됐으며,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 신중심 중부권 시대를 맞아 충청권의 웅비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지난 1998년 10월 1일 출범한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는 1998년 6월 28일 이 지역 지방은행이었던 충청은행을 인수합병한 이후 15년 동안 충청권 인재 6100여 명을 채용했고, 1300억원을 지역 환원사업으로 지원해 옴

['14.1.9] 설 명절 앞두고 성수품 가격 일일점검

- 15~29일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 충남도는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설 성수품 및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점검 등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힘
- 도는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중점 관리대상 품목으로

정한 20개 제수용 성수품과 10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일일 점검함

- 20개 성수품은 ▲사과, 배, 밤 배추, 양파, 파, 고추, 마늘 등 농산물 8종 ▲조기, 명태, 오징어, 김 등 수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종 ▲참기름, 콩기름, 두부, 밀가루 등 공산물 4종임
- 도는 이들 제수용품과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직거래 장터 운영을 확대하고, 할인 판매도 적극 유도할 계획
- 또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노래방 이용료, 찜질방 이용료, 삼겹살, 자장면, 찜뽕, 칼국수, 김치찌개 등 10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습인상을 자제토록 지도하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등 민간 물가감시 기능도 최대한 살려 나가기로 함
- 이와 함께 도는 물가안정 책임관으로 하여금 현장 위주의 물가관리를 강화하고, 도와 시·군,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0일부터 3일간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살피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함
- 또 매점매석과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 행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
- 도 관계자는 “할인행사와 직거래장터 및 착한가격업소 적극 이용으로 설 명절 물가안정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함

['14.1.14] 도내 72개 농공단지 체질개선 나선다

- 14~24일 입주업체 애로·인프라 구축현황 진단평가 실시 -
- 충남도는 14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도내 72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인프라 구축현황 등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힘
- 도에 따르면 이번 진단평가는 ‘2014년도 농공단지 종합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도내 농공단지의 오피수처리시설과 관리사무소 등 노후기반시설, 인력수급 등 단지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됨
- 진단평가 내용은 ▲인력수급 현황 ▲교통시설 이용체계 ▲기숙사 이용현황 ▲원자재 구입현황 ▲오피수처리시설 현황 ▲공업용수 이용현황 ▲관리사무소 이용현황 ▲제도개선 사항 등
- 진단평가 대상은 도내 완료농공단지 72곳으로, 이중 20년 된 노후농공단지가 42곳(58%)이며, 10년 이상 된 농공단지는 55곳(76%)을 차지하고 있음
- 도 관계자는 “이번 농공단지 진단평가를 통해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2014년도 농공단지 종합지원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함

주요 민간 기관·단체 경제리포트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SERI경제포커스) : <http://www.seri.org>
 - 중국 내수기업의 프리미엄 전략
 - 혁신형 창업활성화의 비결, 플랫폼
 - 새로운 경쟁우위 원천, 디지털체험
 - 스마트 뉴딜 : 공공데이터 개방과 기업의 활용
 - 저성장기의 경영전략
- 현대경제연구원 : <http://hri.co.kr>
 - 가계 재무상태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 다보스 포럼이 세계를 이끈다
 - 한·미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비교
 - 2014년의 희망은 '일자리 증가'
 - 2014년 국내 10대 트렌드
- LG경제연구원 : <http://www.lgeri.com>
 - 소비 수요 창조의 일곱 가지 패턴
 - 더더진 원고·엔저 영향, 대비는 늦지 말아야
 - CES로 본 2014년 전자산업, 스마트폰 이을 새로운 성장동력에 갈증크다
 - 중국시장이 가르쳐준 Post-China 시장 접근법
 - 초연결 시대의 마케팅 키워드는 '진정성'
 - 2014년 에너지 시장 전망
 - 기술융합 트렌드 활용한 이노베이터로의 도약
- 한국은행 : <http://www.bok.or.kr>
 - 주요 신흥국의 경제동향 및 전망
 - 2013년 국제원자재시장의 동향 및 향후 전망
 - 신용카드시장의 의무수납제도가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중립적 실질금리 추정 및 변동요인 분석
 - 국내 주택매매가격 변동의 특징과 주요 거시경제변수와의 상호작용
 - 동유럽 주요 신흥국의 경제 현황 및 전망
 - 시장지표를 활용한 자산의 유동성 평가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